

1. 금융당국, 산에는 대우조선 수조원 자금 수혈 요구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대 신규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는 견해를 산업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하려면 유상증자와 대출, RG 등 신규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실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수조원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최소한 유상증자 2조원, 신규대출 1조원, RG 2조원 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대우조선은 7월 25일 2천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11월 30일에는 3천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함
회사채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면 신규 자금 조달 통로가 검색돼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음

2. 금감원, 8월 대우조선 손실 조사 착수

금감원은 내달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대 손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
금감원은 분석회계 의혹이 제기되자 실무진들이 모여 회계 감리 착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산연의 실사 결과를 보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함

3.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최소 1조원, 최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및 대출을 하기로 했다고 21일 정부 관계자가 밝힘

대우조선해양이 숨겨온 2조원대 해양(海洋) 플랜트 사업 누적 손실 처리 방안이 가닥을 잡음
산연은 이날부터 6주 예정으로 손실 규모를 확정하고,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계열사에 대한 실사(實査)에 들어감
해와 치회사 중에서는 루마니아의 대우망갈리아조선소, 중국의 대우조선해양산둥유한공사, 특별법인 설비회사인 미국의 드윈드와 캐나다 대우조선해양트랜트 등 4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
산은 관계자는 "실사에서 드러나는 손실에 따라 유상증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산은 유상증자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과 병행해 부실 치회사 정리, 조직 슬림화, 비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자금 계획 시행을 요구할 방침
금융 당국은 처음부터 "자율협약(느슨한 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은 고려하지 않음"

4. 대우조선 속전속결 구조조정 ... 부채비율 500% 이하 유지가 열쇠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산업은행(대주주) · 수출입은행(최대 채권은행) 주도로 맞춤형 지원에 들어갈 전망
산업은행은 크게 네 가지(▶유상증자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대출만기 연장) 방안을 마련
대우조선은 지난해 4월 5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때 부채비율 500% 이하 유지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채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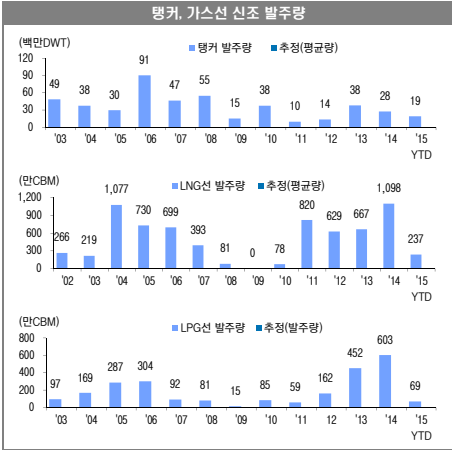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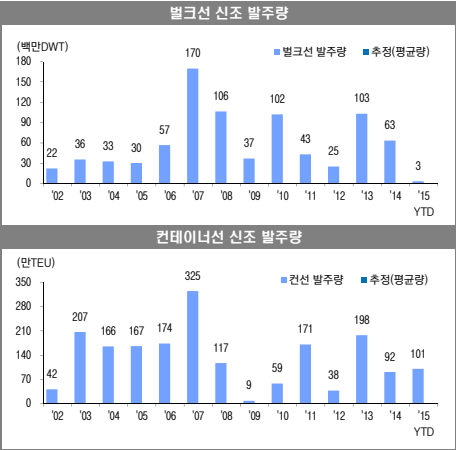
5. VLGC 스팟 시장 바이킹 시대 이후 최고 전성기

Avance Gas CEO는 현재의 VLGC 스팟 시장에 대해 바이킹 시대 이후 최고의 스팟 시장이라고 평가
현 VLGC 스팟운임은 \$120,000~\$140,000/일

6. 팬오션,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

팬오션은 자산과 부채 규모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 대한 변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래에도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7. BDI는 1,113으로 1,100을 상회



지표	종가	-1D	-1M	-3M	-1Y
원달러	1,158.2	1,152.2	1,099.0	1,083.3	1,026.9
WTI	50.4	50.1	59.7	56.2	104.4
BDI	1,113.0	1,067.0	779.0	601.0	724.0
DOWJONES	17,919.3	18,100.4	18,016.0	17,949.6	17,051.7

PEER주가	종가	-1D(%)	-1M(%)	-3M(%)	-1Y(%)
KEPPEL	8.2	0.1	(2.7)	(8.8)	(24.9)
RONGZHENG	0.6	0.0	(26.3)	(39.2)	(64.0)
YANGZHIJIANG	1.3	0.4	(6.4)	(8.7)	23.4
KAWASAKI	568	0.5	(6.0)	(10.4)	42.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양형모).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본부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 증권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시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시에 갖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시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해상운송	주가	전일대비	시가총액	12M PE	12M PB	기관 수급	외인 수급
한진해운	5,500	0.18	1,349	11.8	1.24	50.8	(1.0)
현대상선	6,770	0.59	1,383	(24.8)	1.57	5.8	(110.1)
대한해운	22,400	(1.10)	547	8.6	0.93	2.3	(1.4)

2015년 빅4 수주 가능 물량업데이트 중)
현대중공업: 머스크 14,000TEU 옵션 6척, Anadarko 드릴십 1+1척 경쟁
삼성중공업: Bonga FPSO, Anadarko 드릴십 1+1척 경쟁, OOL 21,100TEU 옵션 6척, GasLog LNG선 6척
대우조선해양: Anadarko 드릴십 1+1척 경쟁, 머스크 20,000TEU급 옵션 7척
현대미모조선:

목표 대비 3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YTD	2014
발크선					0.0	2.5
탱커	4.7	1.3			6.0	16.0
컨테이너선		16.3			16.3	5.0
LNG선/FSRU		7.0			7.0	13.0
LPG선	1.4				1.4	19.8
기타	0.3	1.7			2.0	5.7
시추설비					0.0	0.0
생산설비	5.9	2.0			7.9	60.1
합산	12.3	28.3			40.5	122.0

목표 대비 6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YTD	2014
발크선					0.0	0.0
탱커	2.5	6.6			9.1	8.8
컨테이너선	15.7				15.7	10.4
LNG선/FSRU	4.2				4.2	10.0
LPG선					0.0	0.0
기타					0.0	7.2
시추설비					0.0	12.7
생산설비		61.0			61.0	22.9
합산	22.4	67.6			90.0	72.0

목표 대비 2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YTD	2014
발크선					0.0	0.0
탱커	2.0	1.3			3.3	16.8
컨테이너선		18.0			18.0	7.6
LNG선/FSRU	13.9				13.9	88.0
LPG선					0.0	9.6
기타					0.0	0.0
시추설비					0.0	0.0
생산설비					0.0	27.0
합산	15.9	19.3			35.2	149.0

목표 대비 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YTD	2014
발크선					0.0	0.0
PC선		2.4			2.4	6.0
컨테이너선					0.0	0.4
LNG선/FSRU					0.0	0.0
LPG선	1.0				1.0	10.0
자동차운반선	1.6				1.6	1.4
해양 지원선					0.0	0.0
기타					0.0	1.0
합산	2.6	2.4			5.0	18.9

